

# 재일동포사회를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방안 연구 \*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전 호 성\*\*

황 혜 경\*\*\*

(e-mail : corsel@hanmail.net hkh5500@daum.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재일동포사회의 민족교육    |
| 1.1. 연구목적                 | 3.1. 학교교육          |
|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2. 커뮤니티교육        |
| 1.3. 연구의 한계점              |                    |
| 2. 재일동포사회의 움직임            | 4. 재일동포 심층인터뷰 사례분석 |
| 2.1. 해방 전 관련 역사의 흐름       | 4.1. 주요내용 분석       |
| 2.2.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관련 역사의 흐름 | 4.2. 결과            |
| 2.3.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관련 역사의 흐름 | 5. 나가기             |

キーワード：北韓離脱住民(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在日同胞(Korean-residents in Japan), 共生(symbiotic), 教育(education), 靑少年(youth)

## 1. 들어가기

### 1.1. 연구목적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3만 명(2016년

\*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된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연구’의 내용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사회복지학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일본학

12월 현재)이 국내에 정착 중이며, 이 중 약30%가 경기도내(특히, 안성시, 안산시, 용인시에 상당수가 거주)에서 정착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2%인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19세 이하 북한이탈청소년<sup>1)</sup>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학령기에 해당되는 민감한 연령대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남한 학생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료:통일부



그림 4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그림 3 연령대별 입국현황

현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일반학교와 일반학교 전·편입을 위한 학업보충과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는 한겨레학교를 들 수 있으며, 비정규 교육과정으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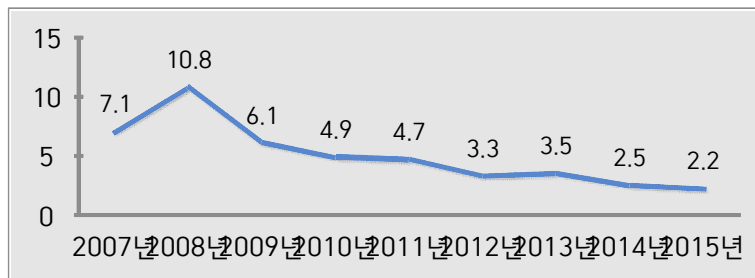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이탈청소년의 초·중·고교 중도탈락률 변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학교유형 안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무난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학교

1)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6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생부터 고등학교 재학생까지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제한한다.

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초·중·고교 중도탈락률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2008년도에 10.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15년도에는 2.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 중도탈락률(0.9%)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률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63.5%를 정점으로 2015년에는 25.3%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지급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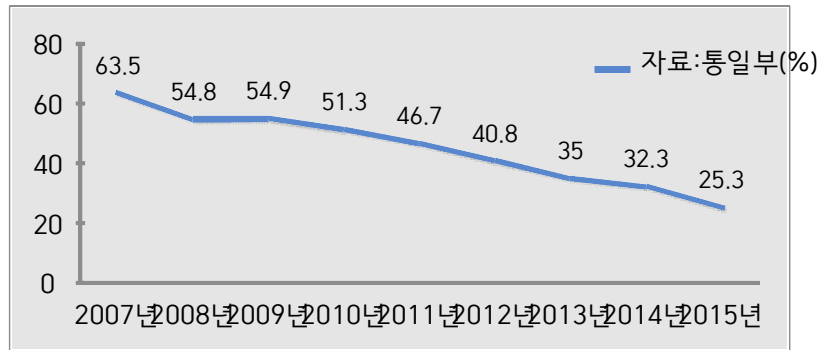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지급률 변화

전히 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향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할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통일을 염두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문제와 더불어 남한학생과의 긴요한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재일동포사례를 토대로 일본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에 어떻게 힘써왔는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2.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재일동포사회의 자녀교육을 포함한 사회적응교육에 주목하여 그들의 자녀교육 사례

를 문헌자료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사회에 재일동포<sup>2)</sup>가 정착한 지도 어느 덧 100여년이 지났으며, 한일강제병합 이후부터 일본국민으로서의 재일동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의 조선인으로서의 재일동포, 한국전쟁 이후 집단적인 한국적(籍), 조총련계인 조선적(籍)<sup>3)</sup>,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적(籍) 등으로서의 재일동포로 각각 살아오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일본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공통점은 정착초창기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주류사회가 아닌 비주류사회, 즉 소수시민으로서 일본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태생의 재일동포 1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고, 2세대들은 부모의 민족교육과 일본사회의 현실 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몸소 느끼며 살아왔다. 또한 3세대들은 스스로의 민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일본사회라는 현실에 맞추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하였고, 4세와 5세는 지인이나 친구들의 국적이 한국적(籍)이나 조선적(籍) 보다는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한국 관습이나 전통 등 민족정체성이 희박해지는 경우와 오히려 당당하게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일반공립학교의 민족학급과 재일동포(민단계)가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재일동포(조총련계)가 설립하여 북한의 일부지원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학교가 존재한다.

## 1.2.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재일동포가 다니는 학교들의 실태파악과 함께 재일동포가 자녀의 사회적응 및 자녀교육을 위해 어느 학교를 왜 선택하였는지, 본인은 일본사회

2) 재일동포에 관한 호칭은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변화」 『일본 문화학보』 36, 한국일본문화학회, p.455 주 참조)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을 포함한다. 재일코리안의 정의로서는 1910년 이전에 일본에 정주한 한국인으로 그 가족과 자손,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사늑약)으로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에 정주한 한국인과 그 자손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재일동포’를 사용하기로 한다.

3) 반드시 북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확히는 무국적 상태임.

4) 황혜경(2016)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1) -2000년, 2005년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학보』 71, 한국일본문화학회, p.281

5) 황혜경(2016)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1) -2000년, 2005년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학보』 71, 한국일본문화학회, p.282.

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살아가고자 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등에 관해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부모의 양육 및 학교에서의 교육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으로는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로, 대상자들은 재일동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오사카시에서 1명, 가와사키시에서 2명, 총3명이다. 이들은 재일동포 학부모임과 동시에 재일동포에 관련된 일에 적을 두고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내포하고 있다.

## 2. 재일동포사회의 움직임

재일동포사회는 일제강점기 전후부터 해방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정착·형성되었고, 재일동포들은 당시 한국내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사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재일동포들은 그 당시 한국으로의 귀국이 여의치 않았고, 따라서 어떻게든 일본사회에 머물면서 정착해야 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주류사회인 일본사회에서의 비주류사회인 재일동포사회로서 살아가면서 정착해가는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우리사회에서 겪어야 할 미래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재일동포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역사 및 그 현황에 대하여 고찰한다.

### 2.1. 해방 전 관련 역사의 흐름

1905년 제2차 을사늑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한반도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회오리가 예고된다. 1910년에는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자작(自作)·소작(小作)농의 이농(離農)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에서 생활하기 점차 힘들어지자 일본으로의 이주(移住)가 시작된다. 그러나, 1919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인의 여행 제한에 관한 건’으로 일본으로의 도항이 제한된다. 1920년대 들어서는 조선산 쌀 증식계획(산미증식계획)의 개시와 토지의 검병 등으로 자·소작농이 몰락하게 되고 유이민이 속출한다.

표 5 제일100년 연표(1905~1945)

년월	주요내용
1905.10	제2차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1910.09	토지조사사업 개시(~1918. 12)자/소작농의 이농현상, 도일 시작됨
1919.04	총독부 '조선인 여행 제약에 관한 건'으로 일본으로의 도항을 제한(1922년 폐지)
1920	조선산 쌀 증식계획 개시 수리세, 토지의 겸병 등으로 자/소작농 몰락, 유이민 속출
1924.05	오사카부 내선(內鮮) 교와카이 설립 조선인의 교화선도를 목적 효고현(1925), 카나가와현(1926) 점차 전국조직화 됨
1934.10	일본정부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 내각회의 결정 일본으로의 도항 억제 일본재류조선인의 '동화' 등 방침 책정
1939.07	'조선인 노동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통달, '회사모집'에 의한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 동원 개시
1942.02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침' 내각회의 결정, '관 알선'에 의한 일본으로의 노무 동원 개시
1945.08	일본 패망 한국 해방

자료:재일한인역사자료관([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에서 필자가 임의 추출함.

한편, 일본에서는 1924년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조선인의 교화선도를 목적으로 내선교회화가 설립을 필두로 1925년에는 효고현(兵庫県), 1926년에는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 설립되고 점차 전국조직화 된다. 1934년, 일본정부는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을 내각결정하고 일본으로의 도항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일본재류조선인에 대한 '동화(同化)' 등의 방침을 책정한다. 그렇지만 1939년에는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의 통달, '회사모집'에 의한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을 시작하고, 1942년에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침'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관 알선'에 의한 조선인의 일본으로 노무동원이 개시되었다.

## 2.2.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관련 역사의 흐름

해방 후, 민족학교의 전신인 '국어강습소'가 1945년에 설립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개정 중의원의원선거법 부칙을 근거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참정권이

박탈된다. 1947년 4월에는 GHQ가 조선인은 일본의 법령에 따르고 일본인과 같이 취학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조선인학교의 허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발언한다. 그러나 1948년 1월부터 문부성이 각 지사 앞으로 ‘조선인학교의 취급에 대하여’(조선학교 폐지령)을 통달하면서 민족교육의 탄압이 시작되고, 1949년 9월 GHQ는 재일본조선인연맹 등 4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고 10월에는 제2차 폐쇄령이 공포되면서 민족학교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선학교 폐지령이 계기가 되어 1948년 4월14일부터 4월26일에 걸쳐서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에서 조선인학교 관련으로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 투쟁이 일어난다. 1963년 5월, 도쿄조선고교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 발생 이후, 매년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문제화 된다.

표 6 재일100년 연표(1945~1965)

년월	주요내용
1945.10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 도츠카(戸塚)에 ‘국어 강습소’(민족학교의 전신)이 세워짐
1945.12	개정 중의원 의원선거법 부칙을 근거로 재일조선인 참정권 박탈
1946.10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결성
1947.04	GHQ 조선인은 일본의 법령에 따르고 일본인과 같이 취학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조선인학교의 허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발언
1947.05	외국인등록령 공포
1948.01	문부성이 각 지사(知事) 앞으로 ‘조선인 설립 학교 취급에 대하여’ 통달, 민족교육 탄압 시작
1948.04	한신(阪神)교육 투쟁
1948.10	민단이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
1949.10	민족학교 탄압, 제2차 폐쇄령 공포
1952.0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재일한국·조선인 일본국적 박탈 ‘외국인등록법’ 공포(지문날인 추가)
1955.5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결성
1963.05	도쿄조선고교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 발생 이후, 매년 각지에서 발생 사회문제화
1965.06	한일기본조약 조인,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결정

자료:재일한인역사자료관([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에서 필자가 임의 추출함.

한편, 1952년 5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재일한국·조선인의 일본국적이 박탈되고, 1959년 12월부터 재일조선인 238세대 975명이 북한으로의 귀

국을 시작으로 187차에 걸쳐서 9만여 명의 귀국이 이루어진다.

표 7 재일100년 연표(1965~)

년월	주요내용
1968.04	도쿄도지사 조선대학교를 각종학교로 인가
1970.12	박종석, 히타치(日立)제작소를 상대로 취직차별 소송 일으킴 (1974.06.19. 승소)
1972.01	이회성, '다듬이질 하는 여인'으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수상
1975.10	최창화 목사, 한국이름을 일본어식으로 읽는 것을 인권침해로 NHK 제소(1엔 재판)
1977.03	최고재판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경득을 한국국적 그대로 사법연수생으로 채용인정
1980.09	한종석, 외국인등록법 지문날인 거부(도쿄도 신주쿠구청)
1982.01	일본정부가 비준(1979.06.21.)한 난민조약 발효 특별영주제도 실시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 철폐(단, 35세 이상은 제외)
1982.09	국공립대학 외국인교원임용법 시행(단, 임기제)
1991.11	협정영주, 특별영주를 합치 특별영주제도 실시
1994.04	민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
1995.02	최고재판소, "영주자 등의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시사
1996.05	가와사키시(川崎市) 도도부현(都道府県)·정령도시(政令都市)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채용시험 국적조항 철폐
2005.01	도쿄도(東京都) 외국적(籍) 직원의 관리직 승임시험 거부소송,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원고 정향균 패소
2012.04	한국공직선거법 개정(2009.02.)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해외영주자가 처음 참가

자료:재일한인역사자료관([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에서 필자가 임의 추출함.

### 2.3.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관련 역사의 흐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투쟁으로 재일동포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사회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1968년 2월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화 되고, 1970년 12월에는 박종석이 히타치제작소를 상대로 취직 차별소송을 제기하여 1974년 6월에 승소한다. 1975년 10월에는 최창화 목사가 한국이름을 일본어식으로 읽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NHK를 상대로 제소(일명, 1엔 재판)한다. 1977년 3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경득이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법



연수생으로의 채용을 최고재판소가 인정한다.

1980년 9월에는 한중석이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을 도쿄도 신주쿠구청에 거부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93년 1월에는 개정 외국인등록법 시행으로 특별영주자의 지문날인이 폐지된다. 1982년 1월, 일본정부가 비준한 난민조약이 발효되면서 특별영주제도가 실시되고, 같은 해 9월에는 국공립대학에서 외국인교원임용이 임기제에 한하지만 시행된다. 1985년 1월에는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혈통주의 변경된다.

1991년 11월에는 협정영주제도와 특별영주제도를 합친 특별영주제도가 실시되고, 1995년 2월에는 최고재판소가 “영주자 등의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시사한다. 1996년 5월, 가와사키시(川崎市)는 도도부현(都道府県)·정령도시(政令都市)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채용시험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한다. 그러나 2006년 1월에는 도쿄도 외국적 직원의 관리직 승임시험 거부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원고 정향균은 패소하게 된다. 같은 해 5월에는 한국민단과 조선총련이 화해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조국인 남북한의 통합에 앞서 재일동포사회내의 통합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2012년 4월에는 한국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해외 영주자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재일동포사회는 일본사회의와 끊임없는 투쟁과 무단한 노력으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기본권적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 3. 재일동포사회의 민족교육

#### 3.1. 학교교육

1945년 해방 이후, 재일동포사회는 조선인학교 설립에 큰 힘을 쏟고 학교설립이나 국어강습소, 공립학교의 야간에 개설된 야간민족학교 등 약2년 간 500개소를 넘는 조선인학교가 설립, 개설되었다. 1948년, 문부성 학교교육장 통달 「조선인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로 조선인학교를 불인정하였고, 같은 해 4월에

학교 폐쇄가 시작 당국과의 충돌이 여기저기 일어났으며,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신(阪神)지역에서 「한신교육투쟁」이 일어났다. 6월에는 오사카부지사와 조선인 대표 간의 「각서」가 교환되어 공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약속되었다. 1949년, 「조선인학교 폐쇄령」으로 오사카부(府)내 각지의 공립학교에 민족학급 설치가 진행되었다. 조선인학교는 1955년 재일본조선인연합회(총련) 결성과 함께 「조선학교」로 정비되어가고, 「각종학교」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재일민족교육의 유형은 ①한국학교-민단계학교(정규학교):백두학원건국유·초·중·고등학교, 금강학원초·중·고등학교, 교토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 ②조선학교-총련계조선학교(비정규학교, 각종학교에 해당, 대안학교), ③일반공립학교-민족학급(정규학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1.1 공립학교 내 민족학급<sup>6)</sup>

1949년, 「조선인학교 폐쇄령」으로 오사카부(府)내 각지의 공립학교에 민족학급 설치가 진행되었다. 2010년 4월 기준 오사카부 170여개, 그 중 오사카시내 100개의 학교에 설치되어있다.

민족학급이란, 한국·조선에 뿌리가 있는 어린이들이 「모임」, 「만남」,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을 배우는 장이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자신의 뿌리, 민족에 대해 알고, 민족에 연결되는 「자기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운다. 또한, 학급의 협력과 민족강사와의 교류 등을 통하여 학교전체에 대한 다민족, 다문화 공생교육을 발신하는 장이 되고 있다.

민족학급에서는 생활, 음악, 미술공작, 사회 등등 교과목이나 종합학습 안에서 「언어」, 「놀이」, 「요리」, 「민족악기」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놀이교류회」, 「만남축제」, 「감상행사」, 「운동회」 등 교내행사와도 연계가 할 수 있다. 오사카시에는 각 지역에 「어린이 민족교류회」가 있고, 「어린이 운동회」, 「여름학교」, 「어린이 민족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3.1.2 민족계학교(민단계학교)<sup>7)</sup>

민단계학교는 백두학원건국학교, 금강학원, 교토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등이

6) <http://korea-ngo.org/kyoiku/kyoiku03.html> 2017년 1월25일 17시30분에서 발췌함.

7) 백두학원([http://keonguk.ac.jp/global/g\\_history.html](http://keonguk.ac.jp/global/g_history.html)) 2017년 1월24일 20시30분에서 발췌함.

있다. 이러한 민단계 학교 중 하나인 백두학원은 1946년 3월, 「백두동지회」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국공업학교, 건국고등여학교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동포사회의 미래를 고려하고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키고자 설립하였다. 당초에는 동포자녀들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공업학교와 여학생의 지덕을 겸비한 새로운 여성, 즉 가정에서는 현모양처,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을 목표로 한 교육활동으로 고등여학교를 설립하였다. 1947년에는 학제개편으로 건국중학교를 개교하고, 건국공업학교, 건국고등여학교를 합쳐 남녀공학으로 300명이 입학하였고, 1948년 3월에는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1949년 4월에는 건국초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49년 5월에 문부성으로부터 재단법인 백두학원 인가를 받았으며, 1951년 3월에는 문부성으로부터 학교법인 백두학원 인가를 받았다. 건국학교의 교육목표로는 자신의 민족,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자부심을 갖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활동으로는 자기실현을 향한 trilingual 교육의 집대성, 국제화 시대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어학력과 다양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연성, 이 기준에 발맞추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학습을 강화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특별진학코스, 종합코스를 갖춰 미래 진로설계가 가능한 실력 배양을 지향하고 있다.

### 3.1.3 민족계학교(조선학교)<sup>8)</sup>

일본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자본으로 설립된 초·중·고교 통합과정의 학교가 70여개, 대학교가 1개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오사카조선고급학교<sup>9)</sup>는 1952년에 개교하였다. 교육특색으로는 풍부한 민족적 교육적 소양, 우수한 어학력과 세련한 국제감각, 폭넓은 학력을 키우고, 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자란 재일동포 자녀가 민족적 소양과 우수한 어학력, 그리고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혀서 조선과 일본의 우호친선에 큰 역할을 하여 국제화 시대의 선구를 이루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재일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민족문화와 전통에 자긍심을 갖고 폭넓은 지식과 높은 품성을 갖추고 일본지역사회 안에서 풍부한 공생사회를 건설해 가는 모습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일본의

8) 오사카조선고급학교(<http://www.osakakhs.com/okhs/2-学校案内/教育の特色/> 2017년 1월24일 22시)에서 발췌함.

9) 오사카조선고급학교(<http://www.osakakhs.com/okhs/2-学校案内/教育の特色/> 2017년 1월24일 22시)에서 발췌함.

학교교육법에 의한 1조교(一條校)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종학교에 해당된다.

### 3.2. 커뮤니티교육

재일동포사회의 대표적인 거주지역으로는 크게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동지방에서는 도쿄도와 가와사키시이며, 관서지방은 오사카시가 대표적인 집주거주지라고 하겠다. 관동지방의 도쿄도와 가와사키시 중에서도 가와사키시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집중적으로 거주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관서지방에서는 오사카시 이쿠노구(生野区)가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일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민간단체나 재일커뮤니티 행사 즉 지역축제를 통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2.1 후레아이칸(ふれあい館)<sup>10)</sup> - 가와사키

후레아이칸 운영주체인 세이큐샤(靑丘社)는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공동으로 민족차별을 없애는 시민운동, 지역활동을 추진하던 중에 1973년에 설립되었다. 민족차별의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활동을 기본 축으로 하는 어린이집(桜本保育園, 1969년 무인가, 1974년 인가)과 재일동포 고령자 교류 클럽 ‘도라지회’(1998년 설립)의 대응차원으로 생활서포트 네트워크, 핫라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레아이칸은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이 시민으로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서로 만남교류의 장소이며, 서로의 역사 이해하고 기본인권 존중의 정신에 근거하여 차별을 없애고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3.2.2 코리아NGO센터<sup>11)</sup>-오사카

민족교육, 재일외국인의 인권보장, 공생사회실현을 위한 교육·계발, 한일시민·NGO교류·협력,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 폭넓은 과제에 관심을 두고 ‘인권’, ‘평화’, ‘공생’, ‘자립시민’이라는 이념 아래에 재일동포를

10) 청구사(<http://www.seikyusha.com/profile/seikyusya.html> 2017년 1월21일 14시)에서 관련내용을 필자가 선택하여 요약정리함.

11) 코리아NGO센터(<http://korea-ngo.org/index.html> 2017년1월21일 17시30분)에서 관련내용을 연구진이 요약정리함.

중심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민족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배움으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민족적 minority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민족교육·minority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센터는 다음세대를 담당할 재일동포 어린이가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민족교육권의 확립을 위한 사업, 특히 오사카의 공립학교에 설치된 민족학급에서 민족교육의 제도보장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문화체험을 ‘이문화의 이해’, ‘역사학습’ 등의 종합학습의 일환으로 그리고 교직원이나 학부모회 등의 인권연수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 3.2.3 재일동포 문화행사(축제 등)<sup>12)</sup>

‘이쿠노 민족문화제’는 1983년 일본에서 최초로 생겨난 재일동포만의 축제로 재일동포 민족축제의 큰 기둥이다. 이 축제는 ‘하나가 되어 기르자!, 민족의 문화를! 마음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마음속으로 바라며, 일본사회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에 의해 빼앗겨 온 민족을 회복해 가기 위한 마음과의 싸움을 의미하며, 농악퍼레이드를 오프닝으로 풍물놀이, 민속놀이, 노래자랑, 마당극과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원코리아 페스티벌’은 ‘원코리아’의 원, 하나(통일)는 재일동포끼의 화해와 교류, 통일의 문자 그대로를 상징하며,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민족, 미래, 창조’를 주제로 민족음악이나 민족무용을 시작으로 가고, 재즈, 락, 상송 혹은 연극, 패션쇼, 제품 전시회 등 여러 가지 장르와 분야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 주는 민족문화제’로 가와사키시립노동회관에서 1994년에 처음 열린 아리랑제는 가와사키시립 고등학교 조선문제연구소와 조선문화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재일동포학생과 일본학생, 교사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재일동포 후손들에게 민족문화를 계승해 가는 자부심, 자신감을 갖게 하며,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동시에 일본친구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서로 존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다민족 공생의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황혜경(2010) 『일본문화학보』 제46집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476쪽~485쪽을 요약정리한 것임.

## 4. 재일동포 심층인터뷰 사례 분석

### 4.1. 주요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부모의 양육 및 학교에서의 교육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재일동포 자녀들은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공립학교, 민족학교로는 민단체학교, 조선학교를 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 학교를 선택했으며,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사회에 어떠한 점이 요구되는지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일동포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5와 같다.

표 8 재일동포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번호	성명(가명)	성별	연령대	재일동포	특징
1	배진호	남	70대	재일동포2세	- 전형적인 재일동포 입장 - 본인 : 일본공립학교 졸업 - 자녀 : 일본공립학교로 진학
2	김신우	남	50대	재일동포2세	- 여러 가지 역경을 부딪쳐 보자는 입장 - 본인 : 민족계학교인 조선학교 졸업 - 자녀 : 일본공립학교로 진학
3	양민자	여	50대	재일동포2세	- 어려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 - 본인 : 민족계학교인 조선학교 졸업 - 자녀 : 민족계학교인 건국학교로 - 민족학급교사

#### 사례1. 배진호

##### [학교 선택]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민족학교도 조선학교도 생각해 주지 않아요. 많은 재일동포 학부모들은 일본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부모들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 교육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민족학교 보낸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냈고, 그 당시 조총련 활동가들이 부모들이 설득하러 다녔는데, 정치적 전략으로 아이들을 잡으면 부모들을 잡을 수 있다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많이 챙겨주면서 접근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조총련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재일동포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부모의 여건에 따라 자녀의 학교 선택이 상이함을 알 수가 있다.

[자녀교육]

나는 일본공립학교를 나왔고, 재일동포들에게 어느 학교를 선택하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줬어요. 그러나 나는 결국엔 실전에서 부딪혀 싸워서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일본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자녀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실전적응을 위해 일본학교로 진학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일본정부에 바라는 점]

“후레아이칸”같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국적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이( 일본, 재일동포, 다른 외국인)서로 교류할 있도록 행정이 보장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후레아이칸 같은 시설은 전국 곳곳에 필요하다. 여러 지역에서 시설을 보고 만들겠다는 의지들이 강했으나 결국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시설들이 만들기 어려웠던 것은 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하나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게 그 이유지요. 이러한 시설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후레아이칸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본정부에게 바라는 점으로 일본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국적을 밝히며 교류할 수 있는 “후레아이칸”같은 커뮤니티 설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은 본인 국적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이(일본, 재일동포, 다른 외국인)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례 2. 김신우

[학교선택]

나의 아이들은 조선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동경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일본사회에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에 조선학교를 동경했지만, 결국 일본사회에서 극복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일본공립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재일동포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선택에서 일본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자녀의 일본공립학교로의 진학 선택했다. 사례2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경을 먼저 부딪혀서 극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임을 알 수가 있다.

언젠가 큰 애가 일본학교에서 이지매(집단 괴롭힘, 이하 편의상 “이지매”로 통일함) 당했어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니 선생님은 괜찮다고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환경에서 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준다”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엄마가 입학식 때 눈에 띄게 전통의상을 입고 와서 그런게 아니냐고 담임이 반격을 했어요.

일본공립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따돌림을 받은 경우로 이 경우는 교육자들에게도 재일동포,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국에 돌아가 버려”, “더러워”이런 말을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가 보다는 누군가에게 습득되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로”까지 만들어보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한 것이 다같이 연극을 해 보려고 생각했어요. 일본교과서에도 나오는 “3년 고개”에서 강강술래 게임도 했는데 이지매했던 친구가 와락 웃으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 아이는 그 당시 그 상황이 없었다면 이지매 하는 쪽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지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얘기해요. 뒤돌아보면 우리 부부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는 힘든 일을 겪게 했지만...

일본공립학교에서 재일동포라고 이지매를 당했을 때 이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처벌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연극 등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다.

#### [일본정부에 바라는 점]

인간의 생명을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은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거니까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공생사회라 하



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재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사회라는 표어는 많이 사용되지만 표면적인 다문화공생사회가 아닌 진정한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바라고 있다.

### 사례 3. 양민자

#### [학교선택]

나의 아이들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학교(건국학교 초/중/고)를 보냈어요. 아이들을 민족학교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름으로 편하게 서로 부르고, 아빠의 고향이 제주도라는 것도 모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민족학교 선생님들은 일본학교를 나와서 나처럼 유년기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보낸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역시 소수민족을 위한 민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본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례3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년시절 재일동포임을 숨기고 일본공립학교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민단체 학교에서 자유로운 민족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타입으로 어려서는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일본정부에 바라는 점]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소수민족)들에게 일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소수민족(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민족교육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학교도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지요. 따라서 일본정부한테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고, 일본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소수자)를 위한 지원도 받고 싶어요.

일본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민족교육과 일본학교 내 재일동포를 위한 지원과 일본의 풍습도 익힘과 동시에 외국의 문화와 풍습도 서로 인정해주는 진정한 공생사회를 중요시 하고 있다.

## 4.2. 결과

이상의 재일동포 인터뷰 결과, 그들이 일본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및 결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일동포 아이들의 학교 선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일본공립학교인지 민족계학교(민단계학교, 조선학교)인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며, 경제적인 이유도 반영되고 있었다. 일본공립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뉘 볼 수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보내는 경우, 둘째는 앞으로 일본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차별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먼저 일찍 부딪혀서 극복하자는 이유, 셋째는 주변에 민족학교가 없어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등록금이 비쌌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이 많았다. 조선학교의 경우는 북한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민족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일본사회에서의 차별과 역경을 우선 조금 차단하여 어려서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경우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남의 눈치 안보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학창시절 힘들었던 상황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자녀교육은 어린시기부터 일본사회에 부딪히며 극복하여야 한다는 타입과 어려서는 많이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성인이 된 후에 일본사회와 부딪혀도 된다는 타입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는 어렸을 때 그 과정에서 고통과 상처가 수반됨으로 최소한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일본사회에 적응이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는 온실 안 화초처럼 안에서 보호받아 성장기는 원만할 수 있으나, 성인이 되어 일본사회의 차별과 역경에 부딪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일본정부나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후레아이칸’과 같은 시설 확충과 민족교류회, 축제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재일동포(소수자)들이 재일동포임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이(일본, 재일동포, 다른 외국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족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과 일본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소수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으로 일본인과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외국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로 인정하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표면적인 다문화공생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공생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조사 대상자들은 일본공립학교, 민족계학교 출신들로 일본사회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로 성장과정이 서로 다르고 주변이 달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 이 아이들이 일본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재일동포들이 일본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역차원에서의 관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할 일본인과 재일동포간의 이해가 최선책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장 실시해야 할 것이다.

## 5. 나가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우리사회에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시대적 배경은 다르나 주류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혹독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현실에서 때로는 순응하며, 또 때로는 투쟁하면서 일본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일동포사회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문화·다민족 공생을 위한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안성시나 안산시, 용인시 등은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다민족 축제 혹은 북한이탈주민 자체만을 위한 축제를 개최(연간, 또는 상반기, 하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필두로 다문화가정 및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기능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전제로 서로 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청소년

년이라는 사실이 노출된다는 것은 또래친구, 교사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무시, 따돌림 등을 당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 전문가인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반드시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4 탈북학생 통계」 교육부
-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강희석, 함세정(2008)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강희석, 함세정(2008)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강희석, 함세정(2008)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윤나(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효과적 지원 방안 모색」 남북하나재단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4), pp.309-341
- 통계청(201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보도자료
-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황혜경(2016)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변화 고찰(1) -2000년, 2015년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71,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1-300
- 황혜경(2010)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71-492
- 황혜경(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 『일본문화학보』 3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51-467
- 高賛侑(2010) 『ルポ在日外国人』 正文社
- 韓裕治・藤川正夫監修, 兵庫県在日韓国朝鮮人教育を考える会・兵庫県在日外国人教育研究協議会(2008) 『多文化・多民族共生教育の原点』 明石書店
- 駒井洋監修, 駒井洋編(2005) 『定住化する外国人』 明石書店
- 金東勲(2005) 「共生時代の在日コリアン」 東信堂
- 馬越徹(1993) 「在日韓国朝鮮人子女の教育における‘民族性’保持に関する一考察—日本教育の‘国際化’再考—」 『名古屋大学教育学部紀要』 36, pp.315-325
- 申鉉夏・權藤と志夫(1982) 「在日韓国入子弟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調査研究」 『九州大学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紀要』 33, pp.55-7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재일한인역사자료관:[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http://www.j-koreans.org/kr/table/100nen_01.html)  
이쿠노 코리아타운:<http://ikuno-koreatown.com>  
청구사:<http://www.seikyu-sha.com/profile/seikyusya.html>(검색일2017.01.21.)  
후레이아칸:<http://www.seikyu-sha.com/fureai/>(검색일2017.01.21.)  
코리아NGO센터:<http://korea-ngo.org/index.htm>(검색일2017.01.21.)  
백두학원:[http://keonguk.ac.jp/global/g\\_history.html](http://keonguk.ac.jp/global/g_history.html)(검색일2017.01.24.)  
오사카조선고급학교:<http://www.osakakhs.com/okhs/2-学校案内/教育の特色/>(검색일2017.01.24.)

논문 투고 일자 : 2017. 03. 26.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 ＜要旨＞

在日同胞社会を通じてみた北韓離脱住民の社会適応方案の研究  
－子ども教育を中心に－

田鎬成・黄慧瓊

本研究は北韓離脱住民がどのように韓国社会に適応していくべきか模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そこで解決策を、類似した経験を背景とする在日同胞社会における子どもの教育を通じて得ようと試みた。在日同胞社会が経験を通じて導き出した課題は、①子どもをどのような類型の学校（正規、非正規）に通わせるべきか、②主流（日本）社会との壁を子どものうちに経験させるべきか否か、③「ふれあい館」のような施設の拡充や民族交流会、祭り等の活性化の必要性などであった。ここから本研究の結論を三つにまとめ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①北韓離脱住民のみならず、多文化・多民族共生のための地域センターの設置が必要であり、②その地域の施設が中心となって多文化・多民族での祭りまたは北韓離脱住民のみの定期的な祭りを開催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③さらに北韓離脱青少年が学校生活に問題なく適応するための学校レベルでの指導と支援が必要なのである。

Study about a social adaptation casting plan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hrough Korean-residents in Japan  
-Focused on child education-

Jun, Ho-Sung · Hwang, Hye-Kyou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should adapt to Korean society. The solution tried to obtain through child education Korean-residents in Japan who had similar experience. The results Korean-residents in Japan society has experienced, ①which typology school (formally, informal)? ②whether or not to experience the wall of the mainstream society of the children ③Expansion of facilities such as "Fureaikan" and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national exchange meeting, festivals etc. were mentioned.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in three. It is necessary not only f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but also for regional centers for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ymbiosis. Regional facility becomes the center, there is a need for regular festivals held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festival 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only. Furthermore, guidance and support at the school level are necessary for youth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o adapt to school life safely.